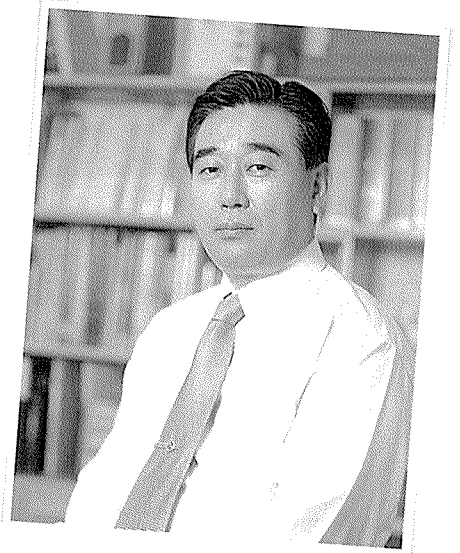


“ 창간 12주년을 맞은 월간 <베이커리>는 독자들의 관심어린 비판과 충고를 겸허하게 귀담아 들으며 관련업계의 대변지, 제과인과 함께 호흡하는 제과 전문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새롭게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 “제과인과 함께 호흡하는 제과 전문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 11월 1일 창간호를 선보인 월간 <베이커리>가 올해로 창간한지 12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대한제과협회와 월간 <베이커리>를 아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과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며 진정한 기술서로 자리매김한 월간 <베이커리>를 위해 긴 세월 동안 뜨거운 성원과 함께 격려를 해주신 많은 분들과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만큼 월간 <베이커리>는 제과인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고 가치를 판단하여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간 <베이커리>와 동갑나기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제과인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진 서울국제빵·과자 페스티벌(이하 Siba 2005)은 약 10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린 가운데 950점의 수준 높은 출품작을 선보여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기록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제전시협회 UFI의 공식 인증을 받아 국제 전시회로 처음 개최되는 대회답게 프랑스, 일본, 중국, 대만 등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참관단이 Siba 2005 행사장을 찾았으며, 처음 마련한 제과 꿈나무들의 열정과 꿈의 무대였던 제 1회 한국학생제과경연대회는 프로 제과 기술인에 전혀 뒤지지 않는 빼어난 실력의 작품을 선보여 제과업계의 밝은 미래를 엿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Siba 2005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그동안 계속된 불황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불투명한 미래를 접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는 제과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입니다. 낡은 것이 있으면 새것이 있고, 나뻐진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렵고 힘이 들수록 무조건 절망에 빠지기 보다는 한발자국 물러서서 먼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희망을 찾는 것이 좀 더 나은 현실을 만들어줍니다.

‘꿈은 나무는 재목(材木)으로 쓰이고, 굵은 나무는 화목(火木)으로 쓰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 절망에 빠진다면 현실 또한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만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이제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낡은 마음을 지워내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새로움만 채워야 할 때입니다.

창간 12주년을 맞은 월간 <베이커리>는 독자들의 관심어린 비판과 충고를 겸허하게 귀담아 들으며 관련업계의 대변지, 제과인과 함께 호흡하는 제과 전문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새롭게 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호부터 보다 혁신적인 내용으로 재무장하고, 세련된 편집 스타일을 선보이며 제과인들의 진정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본 협회와 월간 <베이커리>를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여주시는 회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협회와 월간 <베이커리>가 더욱 튼튼히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대한제과협회장 김 영 모